

- 제2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경상비(사업비, 인건비 제외)부문 세출예산안을 1차 축소·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부문 등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축소·심의하기로 함.

**제3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오전 10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축소·심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함.

**제4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지난 12월 29일 오전 10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비 일부와 건축연구위원회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소관위원회 임원 및 부서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고 축소·심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함.

**제3회 정보전산위원회**

제3회 정보전산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오후 2시 협회 8층 임원실에서 열렸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회원들에게 SNS를 통한 정보전달 방안
  - 현재 홈페이지가 모바일에도 맞춰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협회 정보전산 총당금 적립의 적립방안
  - 각 프로그램별 예상비용을 검토하여 근거 자료 작성 후 담당이사, 위원장의 검토를 통해 예비비를 책정하기로 함.
- 제3호 : 협회 정보전산 2015년도 사업계획
  - 서버실 서버랙 교체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시켜야 함.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 리뉴얼 : 노후한 시스템 사용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발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
  - 정보전산팀 인력 충원 : 업무를 세분화하여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오전 7시30분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기관 및 과정 인정심사(보류건)에 관한 건
  - 지난 회의결과 서류제출 미비 등에 따라 보류된 16개 교육과정과 건축사교육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2개 윤리교육 모두 승인 처리하기로 함.

**제6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6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5시30분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
  - 교육과정운영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윤대길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수료생 사후관리에 관한 건
  - 수료생의 정기모임에 운영진, 사무국도 적극 참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1·2기 수료생 및 한옥연구회와 함께 토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 은평뉴타운 한옥분양단지 중 설계가 시작되지 않은 100여 가구에 대해 2014년도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하고, 은평구청에 한옥설계 교육과정 수료 건축사의 설계사무소와 명단을 제출키로 함.

**건축계 소식**

**김영수 회장, '전남건축인의 밤' 참석·격려**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2014 전남건축인의 밤'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전남지역 건축사 회원 및 건축 관련 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축사에서 "전남지역 일선 건축사들이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다.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은 협회 발전과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건축사들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제14기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모집**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제14기 글로벌건축최고위 과정을 모집한다.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지원자격은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자 또는 기업체 CEO 및 임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팀장급 이상) 등이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FAX(02-523-2284)로 접수 가능하다. 수강료는 100만원이다.

**서울시건축사회 '2014서울건축사 송년의 밤' 성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12월 19일 '2014서울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를 건축사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은 기념식 및 후원금 전달식으로 건축사 및 협회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알리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대내외 건축계 인사와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강창희 트러스트연금교육포럼 대표의 특강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는 예년의 문화공연과 달리한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대구건축사회-대구광역시교육청 MOU체결**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유흥재)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이공계 활성화 및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건축사회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수업 및 특별활동 등을 활용,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건축사협회(AIA) 대중인식개선 3개년 계획**

미국건축사협회(AIA)는 일반 대중 및 AIA 구성원의 행동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AIA 회원 간의 깊은 이해와 공감형성을 목적으로 3년간(2014. 12. 12~ 2017. 12. 12) 대중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AIA의 소셜네트워크(SNS)를 구독하고 전파하면 된다.

**중국 몰레와(Moleea) 프로젝트 설계공모**

중국 후안그룹(The Hua Yan Grou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식물테마파크와 국제건축기념관 등의 계획하는 광관도시계획 프로젝트 '몰레와(Molewa)'를 설계를 공모한다. 20ha에 달하는 뉴타운권역이며, 개발 기본계획은 이미 윤곽이 잡힌 상태다. 등록은 오는 2월 5일까지이며, 작품제출은 4월 10일까지다. 등록비는 없으며, 작품은 온라인(www.creativersal.com/uia)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은 상업 및 문화부문과 주거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에는 160,000 USD, 최우수상에는 80,000 USD, 우수상 40,000 USD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Info@creativersal.com

**국토부, '2014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 5곳을 선정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 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유형의 경우 단독주택에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공동주택에 '장안 e-Plus Housing', 블록형 단독주택에 '행복도시 1-1생활권'이 선정됐으며, 비주거유형으로는 업무시설에 'KCC 서초사옥 별관', 문화시설에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건축기준 완화,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